



제1전시실

본관 제1전시실에는 선사시대의 농경, 역사시대의 농경, 남도문화의 형성, 농사의 사계 가운데 봄·여름 농사가 전시되어 있다. 선사시대 농경 코너에는 반달돌칼, 돌도끼 등 선사시대 농경유물과 우리나라 농경관련 주요 사실들을 적은 농업연대기가 있다. 원시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시대 생활모습을 그린 대형 유리가 걸려 있고, 벼농사의 정착단계인 청동기시대 생활모습을 디오라마로 전시했다. 대전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청동기시대 유물인 농경문 청동기 복제품도 볼 수 있다.



역사시대 농경 코너에는 농경에 소와 철제 농기구를 이용한 삼국시대, 휴한법을 극복하고 연작법으로 넘어가는 고려시대, 이앙법이 보급되는 조선시대 농경 등 시대별 농경을 설명문과 사진·농경관련 고서적으로 보여준다. 남도문화의 형성 코너에는 영산강 유역의 전형적인 마을인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마을의 100년 전 모습이 모형으로 복원되어 있고 영상으로 '남도농사의 특성'을 볼 수 있다. 봄 농사 코너에는 쟁기질, 씨레질, 모내기 등 봄 농촌 정경이 모형으로 재현되고, 쟁기·따비·괘이·쇠스랑·장군·거름통·삼태기·번지 등 각종 봄 농사에 주로 쓰이는 전통 농기구들을 진열했다. 특히 실물로 박제된 소와 농부 차림의 마네킹을 이용한 씨레질 모형이 눈에 띈다. 여름 농사 코너에는 김매기·장원질·물대기·원두막 등 여름 농촌정경이 펼쳐져 있다. 여름철에 사용하는 살포·도롱이 샷갓과 협동 노동 때 동원되었던 장고·북·징·괘과리·상모·고깔 등이 진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리타작하는 모형과 흙통·두레·용두레·맞두레 등 물대는 도구 및 호미와 낫의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